

與件변화 充分히 收容하고 漁民財産 안전하게 保護해야

辛 英 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 론

어업활동에 있어서 어항과 어선은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이것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는한 어업생산의 증대 내지 효율화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제조분야의 생산에 있어서 공장과 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어항은 일반 공장이나 어선이 갖지 않는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민재산의 안전보호기능, 어업생산에 필요한 각종 생산요소의 보급기지기능 및

어업생산물의 유통, 가공기지로서의 기능이 그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어항이 이와 같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정주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어떤 지역이 어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항의 소재 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에서 미루어 볼 때 어업활동의 원활화 내지 어촌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어항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어항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개발

되지 못하고 있음은 막대한 경비가 필요한데 반해 투자회임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수익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회간접자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나라 경제정책이 농수산업 보다는 중화학공업, 생산지원시설 보다는 생산수단의 확충을, 주민생활편이 보다는 생산량증대를 더 강조해 온 결과 수산부문 내에 있어서도 어항개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수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여건변화가 예상되고 있

는바 우리 어항도 이에 부응하여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로써,

첫째, 국민소득의 증대 및 수산물에 대한 인식변화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둘째, 수산물에 있어서도 개방화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어업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불균형성장에서 산업간, 지역간 균형성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다.

넷째, 소득증대에 따라 국민들의 휴식, 휴양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어촌지역은 전부가 관광지라고 할 만큼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의 우리 어항은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민재산의 안전보호에 부족함이 없고, 어업생산,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촌지역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로 바람직한 어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민재산 안전보호시설로서의 어항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민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어항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로써 어항시설물 중에는 방파제 및 기타 소파시설이 주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민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이나 전국적인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인근 지역 및 전국적인 이용가능성을 예측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어항과 어장간의 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세력 및 인근 어항의 어선수용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즉 황천시 조업중이던 어선 중 얼마만한 어선들이 당해 어항이나 인근 어항으로 피항해 갈 것인가를 고려하여 어항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보호시설로서 어항의 구조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인근에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내만이 크게 발달한 지역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항으로서의 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나 항내 면적이 협소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위 일본의 해양종합개발구상(Marenovation)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목적어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목적어항의 예로서 다층형어항과 이안형어항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어항은 앞으로 해양토목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때 다층형어항은 어선의 접안

이 용이하도록 접안시설을 육지에서 격리시키되 육지와 접안시설 사이는 다층형구조로 연결함으로써 물양장, 헬리포트, 주차장 및 어민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이안형어항은 어항수역의 입지여건상 외곽시설이 불가능할 경우 잔교로 연결된 해상에 일정한 접안시설과 외곽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황천시 항구폐쇄문을 통하여 어선의 출입이 가능케하여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어업생산기지로써의 어항

어업생산기지로써의 어항은 어업생산에 필요한 각종 생산요소의 보급기지로써 어항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업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로서는 어선 및 어업자재, 선원, 기타 관련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때 어업자재로서는 어구, 유류, 얼음 등이 중요하고 관련 서비스로는 조선 및 수선, 기타 각종 부품의 공급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어업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항 주변에서 이러한 생산요소를 손쉽게 보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어항이 개발될 경우 이들 생산요소의 보급시설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급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어업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특히 금후 우리 나라 수산업도 개방화 압력 등으로 인해 고도화

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 있음을 감안할 때 단순히 각종 생산요소를 보급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시 말하면 어항의 규모에 비례하여 어업자재나 관련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선원훈련소 및 선원휴게소 설치 등을 통하여 우수한 선원이 원활하게 어업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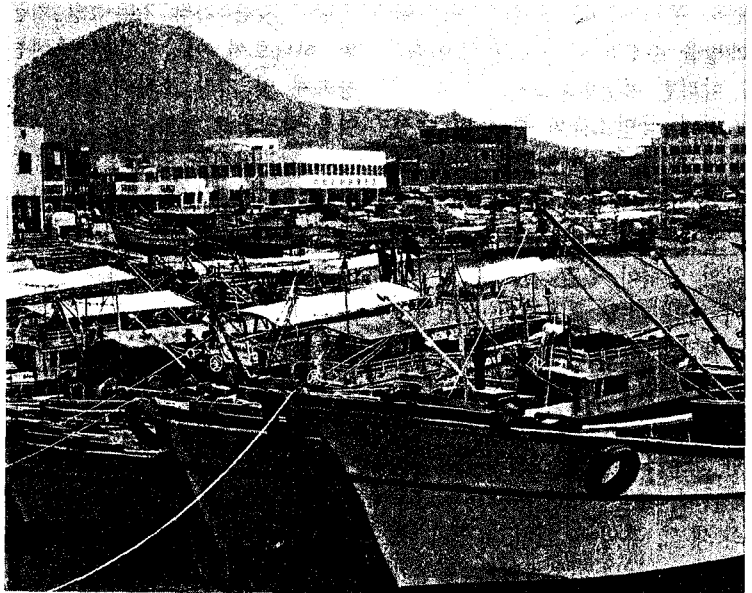
아울러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종 생산요소 간의 상호관련성을 감안하여 공급원에 적정 시설규모는 물론 이들의 위치는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업생산요소의 보급기지로서 어항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해 어항을 이용 하는 어선들에 비해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생산요소간 관련성을 고려하여 각각이 적정시설규모를 갖추는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합리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유통 및 가공기지로서의 어항

수산물은 그 특성상 양륙항구에서 1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신선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가공시설도 양륙항구 근처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어항의 유통 및 가공기지로서의 기능은 어선의 안전수용과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능을 어떻



게 제고시켜 나갈 것인가는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 내지 어가소득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유통에 있어서는 양륙, 가격결정(경매) 및 어획물처리에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점안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부족하면 체선시간이 길어 짐으로써 선도저하 및 어민수취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부대시설로서 어체선별기, 양륙이송펌프(피쉬펌프) 등을 완전히 갖추어서 하역능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금후의 수산물유통도 전자장비의 보급으로 고도화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래의 어항에서는 전자계산기 및 단말기, 텔레타이프, 전화 등을 통한 경매제도가 보급될 것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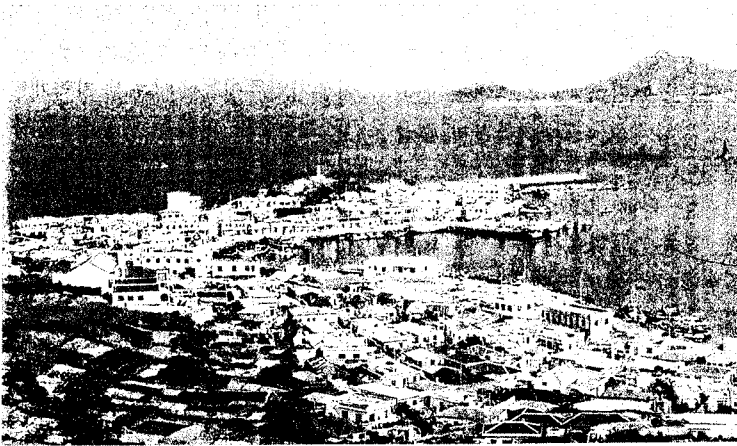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어항부대시설의 하나로서 현재 운영중인 어업무선국 시설은 안전조업 통제 내지 경매 가격 단순제공의 수준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가격정보제공, 즉 가격관측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격관측시스템은 어민수취가격제고는 물론 지역별 가격균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금후의 어항개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밖에 주요 어항별로 취급어종을 특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유통이 가능할 것이며 소비지로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위관장에서 간선도로까지의 도로망도 충분히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가공기지로서의 어항은 수산물이 그 특성상 부패성이 크고 일시에 대량 양륙되는 관계로 더욱 중요하다.

수산물 가공은 흔히 냉장, 냉동



과 같은 저차가공과 통조림 등의 고차가공으로 나뉘어지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저차가공형태의 유통이 일반적이나 앞으로는 고차가공품에 대한 소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편이식품에 대한 기호가 커질 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개발은 그 자체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현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가공시설이 어항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이유는 원료어 자체가 어항을 통해서만이 공급되며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도높은 원료어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어상태로 소비지에 유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통기간 동안 선도유지를 위해서는 양륙항구에서의 냉장, 냉동처리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량 반입되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저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항개

발은 가공단지조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가공기지로서 어항을 개발함에 있어 어종별 양륙량 및 어종별 가공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공시설을 적절하게 확충해야 할 것이다.

어항단지로서 가공시설을 포함하는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어획물 부위별로 다른 형태로 가공하거나 한제품이 타제품의 재료로 이용될 경우 일관적인 작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으로써 현재 수산물가공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어촌정주생활기지로서의 어항

어떤 지역이 어촌지역으로 분류

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가 어항의 소재여부에 있다고 할 만큼 어항은 어촌생활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어업생산 및 유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촌생활 전반에 걸쳐 해당될 수 있다.

어촌의 정주생활공간화를 위해서는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편익시설과 서어비스에 있어서도 도시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촌중심도시와 소도읍, 그리고 배후어촌지역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정주체계에 따른 종합적 개발을 통하여 어촌지역 주민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도시적 편익과 서어비스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기본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촌의 정주생활공간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서 어항의 개발은 어떤 기능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어항이 담당해야 할 기능면에 있어서는 다시 어떤 소득원 개발과 연계한 구조를 가질 것인가와 어떤 부분의 생활환경개선이 시급한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소득원개발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특정 어업의 중점육성이 중심이 될 것이나 반드시 어업부문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어업외소득원 개발

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부문의 개발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활환경의 개선에 있어서는 이 역시 지역여건에 따라 다를 것인데, 어떤 지역은 교통부문을 중점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교육 및 의료부문이 중점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지역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필요한 어항시설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여부와 관계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당해 지역이 전체 정주구 중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즉 어떤 지역이 내륙지 소재의 시·읍급의 어촌중심의 도시라면 내륙지소재 읍·면급의 소도읍이나 도서소재 읍·면급의 소도읍과의 연계에 충분할 만큼의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내륙이나 도서에 소재한 소도읍이라면 소도읍간의 연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나 상위의 어촌중심도시와의 연계는 클 것이므로 이들 사이의 연계수요를 감안한 규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지역간 연계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지표는 지역별 인구수, 생산규모 및 지역간 거리가 중요하며 생산시설이나 문화, 교육시설, 행정기관의 소재 여부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개발된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주민들은 성어기 때는 어업에 종사하고, 어항기 때는 어업의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도시인에 못지 않은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고 해상 및 육상교통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인근지역에 왕래함에 불편이 없을 것이다.



또한 당해 지역에 기본적인 문화, 교육 및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1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이며, 상급학교진학이나 의료서비스도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 국민관광지 조성시설로서의 어항

앞으로 산업사회가 진행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해양레저 내지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언젠가는 소득기회를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이를 즐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서 수 많은 도서와 해안가에는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도서와 해안가에는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어촌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어촌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양관광과 관련한 어항의 역할은 어항시설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관광을 즐기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기능도 한다.

해양관광자원을 위한 어항의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상 교통기지로서의 기능이다. 즉 어항을 통해서 원거리에 위치한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고 해상유람도 가능하다.

그밖에 해상 또는 해중의 전망을 이용한 종합적인 관광시설로서 마리나시설이나 해양박물관, 해중공원 등도 어항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다.

한편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광관련 사업분야로서 음식점(수족관), 낚시터 조성, 낚시배 운영, 주말 어장운영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 분야 역시 어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음식점 운영을 위해서는 어항을 통해서 활어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낚시터나 낚시배도 어항을 근거지로 해서 이용가능하며 주말어장으로서 패조류의 채취행위도 어항배후지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이거나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해양관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어항이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어항의 개발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㉔